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在滿不正業者問題
—拔本塞源的對策을講究하라—

一

來十二月一日부터 實施될 滿洲國의 治外法權撤廢에 伴하야 吾人의 關心을 갖게된것은 在滿朝鮮人問題이다. 其中에서도 特히 注目되는것은 所謂不正業者의 處置問題인바 滿洲國當局은 지난九月부터 在滿朝鮮人不正業者 整理에 着手하야 爾來 五千名에 達하는 在留朝鮮人을 滿洲國內 各刑務所에 收容하고 그 處置方針을 考究한結果 最近一段落을 짓게되여 爲先 將來正業으로 轉換할수잇는者는 各各正業에 從事하도록 指導斡旋하고 나머지即正業에 就業할수업다고 認定되는者는 모두 朝鮮으로 送還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다한다。本報에 報道된 數字만으로도 將次 朝鮮에送還될人員이 一千에 達한다하는데 總督府當局으로서도 何等救濟策이업는 模樣이니 嚴冬을 압두고잇는 그들의 將來가 念慮되는同時 그들의送還으로因한 社會的影響도 全然度外視할수업는바이다。

二

不正業者는 文意가 示하는바와가티 社會生活에 福利를 增進할만한 正當한 生業으로부터 떠나 社會發展을 妨害하고 社會道德에 背馳되는 惡業의 營利를 말함이니 例하면 痲藥密賣、賭博、恐喝、詐欺取財等을 일삼는者들이다。周知하는바와가티 從來 在滿朝鮮人의多數는 素朴勤實한 農民들로 水田開發과 荒蕪地開拓에 獨特한 技能을 갓고 滿洲農業開發에 多大한 貢獻이 잇섯다는것은 滿洲國人自身까지도 認定하는事實이다. 이와反對로 近年에이르러 不正業者가 滿洲國到處에 潛在하야 社會에 害毒을 끼치고 國法을 紊亂케하는것은 非單 在留朝鮮人의 體面에만 關係되는 問題가아니라 社會敎化上에도 重大한 關係가잇는만큼 滿洲國으로서 그들에對한 取締를 嚴重히할것은 一種當然한 措事라할것이다。

三

그러나 數로서 數千을 算하는 所謂不正業者를 取締함에 當하여는 먼저 그들이 發生하게된原因及 그處置로因한 將來의 社會的影響을 深甚히 考察하여야 할것이다。이것이 업시는 到底히 拔本塞源의 防止를 期할수업는 同時에 豫想치못하는 重大結果를 招致할 憂慮도잇다。今日에 와서 在滿朝鮮人中 所謂 不正한 營利에 從事하는 數爻가 幾千에 達하게된 原因은 一、滿洲事變直後 國法施行이 徹底치 못하엿든것과 二、當局의 移民事業에 統制가 周到치 못한데 잇다는것을 指摘치 안흘수업다。過渡期에 잇서 法令施行의 弛緩은 自然不正業者의 跋扈를 誘致케되고 漠然한 移民奬勵는 人民의 射倖心과 投機的意慾을 挑發케하야 今日과가튼 不祥事를招致케 한것이다。

四

不正業者의 處置方針으로 一面正業을 奬勵하고 轉業할수업는者는 朝鮮으로 送還하는 것도 不得已한 措置라할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素質、技術、其他資本程度等 여러가지 條件을 無視하고 一律로 集團部落에 移住케하야 農業에 從事케 하는 것은 適切한 措置라 하기難하고 轉業할可能이 업는者를 朝鮮으로 送還하는것도 賢明한 方策이라할수업다。먼저 그들을 處置하기前에 [illegible] 設置하야 各個人의 素質 技術 資本 其他必要한 諸般條件을 詳細[illegible]한然後에 各其適當한 轉業을 勸奬하고 指導하여야 할것이며 다음에 不正業者의 再發을 防止하는 根本對策으로 [illegible] 徹底[illegible]하야 不正業者를 助長하는 [illegible] 徹底히 團束하는同時에 [illegible]人의 正當한 事業을 一層 奬勵하야 그들로하여금 正業에 就業케할機會를 提供하여야 할것이다。

軍事行動은一段落!
南京攻落은아직未定
日支提携主旨下에交涉하여온다면 相對가蔣介石이든國民黨이든不關
斡旋程度의第三國介入도是認

近衛首相車中談

近衛首相

【名古屋電話同盟】近衛首相은 皇軍將兵의 戰勝과 東洋平和의 樹立을 祈願하기爲하야 二十六日午後一時 東京驛發列車로 西下하야 伊勢神宮 橿原神宮 桃山御陵 熱田神宮等에 參拜의 途中車中에서 時局全般의 處置에 對하야 左와如히 政府의 態度를 闡明하는同時에 事變의 目的達成에 邁進하는 政府의 確固한 信念을 吐露하야 强한印象을주엇다

▲戰局의 豫想

普通人의 側面觀에 不過하나 軍事行動으로는 이것으로 一段落이라할것이오 이로부터는 南京까지갈가 어쩔가하는것이 남어잇는모양이다 漢口까지 가지안흐면안된다는 說이 民間에잇는모양이나 將來漢口와 廣東과의 連絡이 經濟上 軍事上 一層有利하게 動作할 念慮가잇는것은 充分히 생각해두지안흐면안될러이다 山東省은 自然히우리손에드러오기를 기다리고잇다고 생각된다 靑島는 將來日支提携上에 極히重要한곳이될러이다.

▲支那事變의 結果處理

事變勃發以來 我軍의派兵의 目的은 國民政府를相對로하야 그 反日抗日政策을 廢棄케하고 日支國交의調整에依하야 兩國이共同으로 東洋平和를樹立하자는것이 그目的인데 이豫定은 今日에 依然히不變이다 그러므로 北支든지 上海든지 分離하야 國民政府가 抗日政策의 大轉換을하야 日本과提携하야 가게되야 그主旨下에 日本에交涉하야오면 相對者가 蔣介石이든지 國民黨이든지 不可하다는것은아니다 南京政府가 反省의事實을보이고 交涉의손을펴고오면 我國으로서도 그에應할생각이다 萬若 反省의事實을 보이지안코 어데까지든지 長期抵抗을繼續한다고하면 勿論我國으로서도 곳까지 長期에亘한 覺悟로서 徹底的 膺懲을 加하기를 不惜한다 그러나 長期抵抗을 繼續하는 間에 自然 北支 그他의 地域에 獨立政權이 이러날것은 四國의 情勢로보아 必至할것이다 萬若 그獨立政權이 日支國交調整上에 所用되는것이면 이와 提携하여갈것을 充分히생각하게된다 또 그政權을 强化하는데 對하야 日本으로서는 協力할것도 考慮할 必要가잇다

▲宣傳布告와 第三國의態度

今回의 事變은 支那民衆을敵으로하는것이아니므로 只今까지 宣戰布告는하지안는 前提로 進行하여왓다 그러나 將來 形勢의 變化에따라서는 或은 그必要가 생길는지도모른다 事變의 結果를짓는데 對하야 第三國의 介入을 不許하고 곳까지 直接交涉을 繼續하겟다는 方針은 只今도 何等 變함이업다 그러나 第三國의 斡旋程度의 介入까지 拒絶한다는것은아니다 今日까지는 아직 何國으로부터도 그런 情勢는 表示되지 안헛다 英國의 態度에 對하야 情報에 依하면 相當한 武器彈藥을 供給하고 잇는모양이나 最近은 英國도 若干그態度를變하여온 形跡도잇는모양이다 蘇聯과의 關係는 明春三月頃까지의 國內情勢라든지 或은蘇聯을 圍繞한 國際情勢를 注視하지안흐면안된다 漁業條約問題도 只今까지는 그러問題가 되여잇지안는모양이다

▲北支政權과經濟工作

最近北支로부터 歸來한人의말에依하면 來年三月頃까지에 新政權이 [illegible] 모양이다 北支로부터는 [illegible]

▲九個國條約問題

九個國條約은 結局 [illegible] 것이나 아직 그 時機가 [illegible] 九個國條約의 [illegible] 각치안흐면안된다 九個國條約의 [illegible] 오히려 늦엇다는 感이 잇다 適當한 機會에 그 [illegible] 함이 가장 必要하다 東洋의 [illegible] 東洋人의손으로 [illegible]한다는 것이 數年來의 我國의 [illegible] 여잇스므로……

▲再聲明問題

長期抗日에 [illegible] 帝國의方針에 對하야는 아직까지는 다시聲明할必要는업다고생각한다 다시再聲明을할때는 八月中旬에한 聲明에述한것이 事實上判明한때일것이다

丹陽上空에서 敵數機와空中戰

【上海二十六日發同盟】 [illegible]部隊 [illegible]機○機는 二十六日正午頃 丹陽、鎭江方面을偵察中 丹陽上空에서 南京方面으로부터 [illegible]한 [illegible]와 遭遇하엿스나 壯烈한 空中戰의 末 [illegible] 撃墜케하고 無事히 任務를 [illegible]하엿다

米穀三勅令案 廿七日官報로公布

【東京電話同盟】去七十二議會를 通過한 「米穀의 [illegible]」 關係의三勅令案은 二十七日官報로써 公布하야 十二月一日부터施行되게되엿다

漢口에支那機 六十臺잇다

【東京電話同盟】廿六日 [illegible]만한側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最近漢口로부터 [illegible]各一小隊와 戰鬪機二小隊의 支那飛行機가 廣東省日軍飛行場에 到着되엿는데 漢口에는 [illegible] 各二十臺 戰鬪機四十臺가잇고 그 操縱士를養成하기爲하야 五十人의支那人과 蘇聯敎官이 速成으로 指導를하고잇다고한다.

名譽의戰死者

▲森本部隊
●十一月二日戰死
少尉 三笠茂 (神戶市兵庫區羽坂通三ノ一二)
●十一月十八日戰死
准尉 守屋順作 (京城府漢江通九의一〇八)

蘇의邦人壓迫에 樺太廳大激憤
國境守備에萬全確期

【豐原電話同盟】樺太廳警察部에서는 支那事變發生을 契機로 斷然强化의 傾向에잇는 蘇聯政府의 壓迫及在留邦人에對한 不法壓迫이 增加하고잇는 北樺太의 實情에 鑑하야 北緯五十度線으로써 하는 日蘇國境線의 守備는 所管警察로하여금 全力을 다하게하엿다 此際오히려在留邦人에 [illegible] 强硬한 게·페·우가 피스를銃等을가지고 이를 [illegible]하며 三十年이란 長期刑에 處하야 [illegible] 成으로 我領海內에서 [illegible] 고잇는 [illegible] 事件하는 [illegible] 邦人에 對한 [illegible] 不法行爲를 [illegible] 太警察에서는 極度로 [illegible]하고 잇다 從前부터 [illegible] 써 彼等에 對하고잇섯슴에 不法行爲가 [illegible] 出할은 我方을 [illegible]하는彼等의 [illegible]는 [illegible] 樺太廳으로서 大한 [illegible] 警戒를 시키고 萬一의 境遇에는 斷乎한 決意로서 [illegible] 北緯五十度 日蘇國境線守備에 毅然한 態度를 示하엿다

河南省自治政府 彰德에樹立決定
各界代表의意見一致

【彰德廿六日發同盟特派員發】廿五日 彰德에서 各市民代表民衆大會가 開催된結果 南京政府의 黨政으로부터 完全히 離脫한 今日에 速히 同市에 河南省自治政權을 樹立함이 可하다는데 各代表의 意見이 一致하야 卽時 準備에 着手하야 廿七日午後二時부터 同市에 河南省自治政府 樹立式典을 擧行하기로 決定하엿다

國民政府 經濟工作에汲汲

【上海二十六日發同盟】國民政府는 今次事變에 依하야 國民經濟가 破壞된 [illegible] 防止케 爲하야 各種手段을 講究하고 잇는데 南京遷都前에 生産促進과 貿易調整等의 見地에서 農、工、鑛、貿易三調査委員會를 設置하고 農工商當事者와 協力하기爲하야 各省市에 訓令을 發하야 政府系四銀行으로 成立된 融資委員會로하여금 財的援助를 하게하기로 決定한것이 明白하게 되엿다 그目的은
一、各地農産物의 需給關係의 調整
二、工業及鑛業에 對한必要한援助
三、茶、生絲、皮革、鷄卵、植物油等重要輸出貿易의 維持이다

【上海二十六日發同盟】
一、太湖南方에 作戰中인 部隊는 今早朝長興及 그南方地方을 占領하고 繼續하야 敵을 追擊中이다
二、太湖北方의 作戰은 또 有利하게 進展하야 諸隊는 常州(無錫西方八里)方面의 敵을 追擊하고잇다
三、我陸軍飛行隊는 快晴을 利用하야 朝來活動을 繼續하야 特히 丹陽附近에서는 退却中인 地上部隊及 小艇에 依하야 크리크를 退却中인 部隊에 對하야 爆擊을 敢行하고 廣德、溧陽附近에서는 密集한 部隊에 猛擊을 加하야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楊虎城 廿六日歸國

【香港二十六日發同盟】西安事變의主役者이오 事變直前外遊中이엿든 前陝西綏靖主任 楊虎城은 二十六日午前八時에入港한 佛國汽船으로 歐洲로부터歸着하엿다

人事·集會

▲李泰鎔氏(楊口郡守)新任人事次 廿六日來社

勞働時間은原則으로 十二時間以內로
全國에散在한各工場에對한 政府의勞働事項指導

【東京電話同盟】事變擴大에伴하야 全國軍需品工場에서 相當히 長時間의殘業이 繼續的으로 되여서 勞働者의健康狀態低下와 災害增加等憂慮할만한 傾向이잇슴에 鑑하야 內務省社會局에서는 今後의 持久戰을圖하야서 勞働能率을 增進하야 生産力의增加及 非常時局에對處하기爲하야 勞働力의維持增進과 災害防止等에關한指導方針을 左와如히 決定하고 管下工場에主로 그實行을勸奬하게되엿다

勞働事項에關한 指導方針內容

▲指導方針

今次事變을當하야 軍需品工場에對하여는 勞働을維持하야 生産能率을 增進하야서 生産力增加及持久를 圖하기爲하야 左記에依하야 適當한指導를하고 過長勞働時間을 節制하고 殘業災害防止와 勞働者의 健康保持에 努力할것

一、勞働時間에關한事項
(一) 一日의勞働時間 殘業時間을 包含하야 原則으로 十二時間以內로할것
(二) 休日은 적어도 每月二回 이를 許與할것
(三) 特히長時間勞働을 必要로하는境遇에도 一日就業時間은 이를十四時間以內로할것
二、災害防止에關한事項
(一) 不熟練工에 對하야 特別한 指導를주어 危險한 業務에 對하야는 單獨作業을 식히지아니할것
(二) 工場의 新設增設又는 改適의境遇에는 完全한 機械裝置를할것
三、保健衛生에關한事項
(一) 工場內에休養設備를 設置하야 每日適當한 休養을식힐것
(二) 從事하는 全職工에게 對하야 健康診斷을할것

佛海相演說로 伊太利側大憤怒

【羅馬二十五日發同盟】佛國海相 세잘·캄팡키氏는 去二十三日南佛츠롱에서 汽船『제네랄·포나파르트』號의船員을 아페두고 佛國國防計畫에對하야 演說을行하엿는데 쥬르날·데·이타리야紙主筆 빌지니오·가이다氏는 二十五日同紙上에『戰爭에呼訴하라』고 題하는 社說을揭載하야 캄팡키海相이右演說에서 祖國佛國의防備에對하야 코르시카人의忠誠을 論하고다시佛國陸軍이 알프스의 峻嶮을넘어 伊太利에攻入할用意가잇다는旨를 言明하엿다고 激越한口調로 佛國海相의演說을非難하엿다 이 가이다氏의論說은 때마 마치日獨防共協定締結一週年記念祝典으로羅馬市內가 沸騰하는때임으로 市民의 反佛感情은 極度로 昻揚되여 祝賀會後의大衆이 佛國大使館에 몰리여와서 反佛데모를行할形勢에 이르럿스므로 警官隊多數가 大使館의警備에就하야 附近一帶는 森嚴한情景을呈하엿다 그런데 佛國海相은 如斯한演說을 行한일이업다고否定하엿다

上海戰線 午後六時發表

【上海廿六日發同盟】上海軍午後六時發表

夕刊後市況 廿六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群山 三·二五 一 三·六〇
木浦 三·五 一 三·七七

◆大阪 棉花 後引◆
當限 五二八五 先限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六〇〇 先限 六五六〇〇

◆大阪 人絹 後引◆
當限 六一〇〇 先限 六四六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〇九〇 先限 六四九〇

長驅洛陽空襲 敵十數機粉碎!
格納庫其他軍用施設도爆破
隴海線一帶制空確保

【天津二十六日發同盟】我加藤部隊는 新銳○○機는 加藤部隊長이 親히 指揮하야 나쁜日氣를 무릅쓰고 連日에亘하야 長驅하야 洛陽을 攻擊하야 飛行場、格納庫、軍事施設等을 爆擊하고잇는데 이爆擊에依하야 敵飛行機十數臺는 全完히 粉碎되여버렷는데 敵空軍은 隴海線의 洛陽、西安을 中心으로 機會를 엿보고잇섯스나 我軍의 猛擊에아조 逃避한 殘機는 드디어 抵抗도하지안코 어듸지 蹤跡을감초아버려 同方面의 制空權은 完全히 我飛行隊의손에歸하야 今後의 活躍이 더욱 期待되게되엿다

島谷部隊機 泰安驛爆擊

【天津二十六日發同盟】島谷部隊의○○機는 二十六日午前十時三十分 津浦線泰安驛(濟南南方六十粁)을 爆擊하엿는데 爆彈은 同驛에 待機中이던 四個列車及線路에 모두命中하야 이를粉碎하야 多大한效果를收하엿다

最後勝利確信
停戰은日本側態度如何
蔣介石外人記者團에依然豪語!

【上海二十六日發同盟】蔣介石은 二十五日夕刻宋美齡과함께 外人記者團과 會見하고 次와 如한 談話를 發表하엿다
吾人은 最後의 勝利를 將來할 것을 確信하고 支那의 國策은 一寸의 土地와 最後의 一人까지 抵抗하기로 決하고잇다
問 南京防衛에 對하야는 끗까지 死守하야 外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하는 任에 當할것이오 南京의 運命에 올기는 同時에 市街를 撤退하려는 說이 傳하고잇스나
答 余의 希望하는 바는 [illegible]
問 停戰은 [illegible]
答 如何한 [illegible]
問 이는 [illegible] 不通하다 停戰의 可能性은 日本側에 依하야 決定될것이다
問 第三國의 仲介에 對하여는
答 [illegible]
問 ...는 [illegible] 希望하는 바는 支那에 何等의 援助도 주지못하는데 支那는 他方面의 援助를 希望하느냐
答 九個國條約調印國은 반드시 支那를援助하리라고確信하고잇다 萬若이것이 無效되면 規定된條約은 모두無效가 될러이다

驀進機關車에跳上 轢死의危機脫出

乘馬는哀惜! 鐵輪下血塊化

居山驛附近의珍奇한事故

決死奮迅의神技

【北靑】 진행하는 기차에 위험하거도 뛰어올라 기관차에 뛰여올라서 생명을 신기하게도 보전한 진기한 절도사고— 북청군 거산면세동리(北靑郡居山面細洞里) 팔백이십오번지 김영환(金榮煥)은 지난십팔일오전 산에가서 나무를 실고오려고 말을타고 거산역부근에 다달엇는데 때마침 북행 제구천이백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잇슴으로 기차가지나가기 기다리고잇는바 그때에 여기차에 놀란말이 선로에 뛰여 … 련차에 련결되얏는데 김영환은 무의식중에 기관차의 꽉대기에 뛰여올라서 다행히 머리에 경상을 입엇슬뿐 생명은 건젓다고 한다

水原殺人强盜 犯罪事實을否認

檢事는無期役求刑

… 돈을꾸러갓다가 엇서서못꾸어주겟다고 거절당하고 분개하야 그를죽이고 돈을빼스려하엿다는 경기도수원군음덕면송촌리(水原郡陰德面松村里) 림우현(林□□)에관한 강도살인피고사건공판은 이십륙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로 개정되엇다 … 서 피고는 그자리에서 돈을꾸지못하고 밤에나 다시만나기로하고 헤여젓다 이리하야 그날밤아홉시쯤에 다시차저 먼저말한돈을 꾸어달라고하자 리양선은 업서서 못꾸어주겟다고 거절하엿다 이에분개한 피고는 리양선이가 독신으로 함께사는사람이 업슴을 리용하야 그를죽이고 돈을빼앗고자 … 양선을 땅에자빠트리고 … 치가량되는 주머니칼로 목과귀미를찔러 즉사시키고 … 달하엿다는것인데 피고는 재판장의 심문에대하야 전연사실을 부인하야 …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엿다

親日米人獻金

赤十字社에

일본정신의 연구가인 미국(米國)뉴—욕시의 『제·따불유·티메롯손』씨는 일직이 소화삼년 삼륙지방(三陸地方)의 해일에대한 구제자금으로 일본적십자사에 헌금해오신일을 보내여온후에도 지나사변에 『일본인이 지나에잇는 부녀를 구호하려고 적십자사에 헌금하고 의다함으로 나도 내처와가티 그에찬가하게 하여주시오』라고 헌금일백원을 봉투에 너어 적십자사에 보내게 되어 계원등을 감격하게하고잇다

까스室死事件은 器具의不備로

기보—이십오일 부내북미창정(北米倉町)삼비려관(三□旅館)에서 「까쓰」에 질식되여 죽은조선총독부 시원결(市原潔)의 질식원인은 다음과갓다고한다 즉 「까쓰」관에 달린두개의라사중에서 외로로부터 연결것을 막어야할려인데 시원이가 그릇하야 딴라사를 돌렷슴으로 고무관이 빠저 그리로 「까쓰」가 나온것이라고한다 또한려관측으로 보아서 고무관이 잘빠지지안토록 충분한 주의를 못한점도잇섯다고한다

京電配車不圓滑에 市民의不平囂囂

주의보고바든 종로서에서

不日中電車課에正式警告

하로하로 년말에갓가워 가는 요사히 시내의사람들이 격증함을따라 전차, 뻐스등은 대혼잡을 이루어 만원되는 차가만흔에도 불구하고 『만원』이라는 표찰(標札)을붓치지안코 그냥지나가버려 안전지대에서 기두르고잇는 손님에게 큰불편을줌뿐 아니라 때로는 지나가버리는차를 탈야고하다고 부상을하는 사고까지 이르키는일이잇서 점점 진절하여가는 경전승무원에 대한 시민의 비난이날로 높하가고잇스며 도파회문네거리는 『오피—스·센터—』의 교차점으로 아츰과저녁 랏슈·아워에는 배차(配車)가 원활치못하야 안전지대에서 십분이십분기두르는 일이흔히잇슬뿐아니라 이로말미암아 모힌사람으로 부근의 다른 교통에까지 방해를주는일이 만허 이주의보고(注意報告)를바든 종로서에서는 근근전차과에 정식경고를 하기로되엿다

結氷期鴨綠江岸 各地에渡船禁止

本格的寒波襲來로

【新義州】 북국적으로 한파가습래하야 평북 압록강은 모다 교통두절상태에잇는데 이십오일까지도 보안과에들어온 제이회결빙상황을보면 다음과갓다

◀자성군 자하면(慈城郡慈下面) 파 대안 상구비삼도구(上九排三道溝)강은 결빙으로 도하금지

◀후창(厚昌)서 관내 압록강은 결빙으로 도선금지

◀위원(渭原) 수로강(秀路江)도 결빙으로 도선금지하고 초산(楚山)행 자동차는 주게오전

◀의주서(義州)관내압록강은 이십오일 량안(兩岸)보다 이십〃미돌〃내지 삼십〃미돌〃이 결빙되여 역시 도항금지되엿다고한다

愛國黃海號

海軍에獻納手續

황해도(黃海道)도민의 열성을 다한 애국기(愛國機)『황해호(黃海號)』(해군의것)헌납자금 삼만오천원은 이십오일 황해도도민대표로 강지사(姜知事)로부터 총독부 동방해군무관에게 교부되어 어용괘(御用掛)는 곳 헌납의 수속을하엿다 또한 이번 사변이래 조선내에서 해군에 헌납된 애국비행기는 전부 구기에 달하엿다

여죄를 엄중취조중이다

힘센쇠도적

이십륙일새벽에 룡산서에서는 힘센쇠도적한명을 체포하여왓다 그는 경남밀양군(慶南密陽郡)에 원적을두고 부내에와서 룸펜으로잇는 정의택(鄭義澤)으로 지난 구일오후일곱시반쯤 부내원정삼정목에잇는 회전철공소창고속에서 고철눌이삼십관을 한번에절취한것을 비롯하야 황금정(黃金町) 한강통(漢江通)등지를 도라다니며 절도하다섯건이나 절취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여죄를 계속취조중이다

自轉車專門賊

수일전동대문서에검거취조중이부외동독도리(東纛島里)오백삼십삼번지 홍관표(洪寬杓)는 지난달십일일 신당정(新堂町)에서 자전거한대를 훔친외에 각처에서 자전거만 수십여대를훔치과 팔어먹은것을 자백하엿다

黃金鵰詐欺團檢擧

이십오일오후일곱시쯤 부내룡산서에서는 귀금속사기단상인조 일당을 일망타진하엿다 그들은 원적을 경북예천군지보면(醴泉郡知保面)에두고 부내에드러와서 룡산방면에잇는 … 삼호 부내 통의정(通義町)삼정목 거주의 홍종식(洪鍾植)와 김재호(金在浩)의 세사람인데 도금한 이원자리 백동시계를가지고 지난십월경에 통행인에게 려비부족이니 물건을 사달라는 거짓말로 금시계라고 하야 이십원에 팔어먹어왓던것으로 그들은 공모하야 그러한 사기행동을 각처에서 해먹고 지난 이십오일 오후여섯시쯤 룡산서 사법계형사가 … 형사가 … 이가 그를 형사인지도 모르고 …

戶主中心主義로 入籍者의姓變更

한집안에타성을업새자는것

法務局서研究進捗中

종래조선사람으로서 일본내지인과비슷한 이름을지어서 계출한것은 일단고치도록하고잇섯는데 이방침을버리고 조선사람도 일본내지인과가튼 이름을써도관계치안타는것은 총독부로부터 관계방면에 통첩을발한것으로도알수잇거니와 총독부에서는 더한거름나아가 일본의 가족제도를 조선사람에게도 보급시키려고 목하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에서 연구중인 조선민사령(民事令)개정에 당하야 민법제칠백사십륙조의 귀정을 조선에도 실시하려고 신중히 연구중이라고한다 조선은 판례법에 의하야 호가출하야도 구성(舊姓)을 그대로 부르고잇섯는데 한집안에호주와 다른성을 가진사람이만흔 법규운용상 여러가지 지장이만허 이것을 호주중심주의에의하야 가족은 전부그집의 성을쓰도록 하자는것이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개정조안은 대체성안을어더 이에따르는 호적령의 개정가사(家事)심판법 교정원법(矯正院法)등의 실시에 관하야 신중조사연구를진행중이라고한다

密陽殺人强盜事件 被告에無罪判決

【豫審에서까지有罪로決定】 緊張한言渡의一瞬間

眞犯은???

【馬山】 작년 십이월륙일밤 밀양군 부북면 춘화리(密陽郡府北面春和)박소춘을 칠탄산(七灘山)중에서 때려죽인 살인강도사건에대하야당시 밀양경찰서에서 그혐의자로 동면 사포리(前沙浦里)김성출(金聖出)을 체포하야 엄중취조한결과 범인으로 인정하고 살인강도죄인이라는 무서운죄명을 부처검사국으로 넘겻슨바 검사국에서도기소(起訴)를하야 예심에회부하엿섯는데 예심에서도 유죄로결정되여마산지방법원 공판에넘어왓든것이다 그리하야 지난십팔일 제이회공판을 개정하고 립회검사로부터 사형(死刑)을 구형하엿는바 원래사건에대한 범인으로 단정할만한 아모런 증거가 업슬뿐아니라 피고로서도 끗끗내 범행을 부인하야 경찰서에서 범인으로 단정하고 송국을 하엿고 예심에서도 유죄로결정되엿슴으로 과연 진범인지 아닌지 최후의판결이 크나큰흥미를끌게하든바 지난이십오일 법정에서 제삼회공판을 열고유택(有澤)상석 판사로부터 피고에 대하야 무죄를 언도하엿섯다 판사가 판결문을 랑독하지 범인이되여 사형을 바드면 맛당하나그러치 안으면원죄(冤罪)의 혼이 되게되여 생사(生死)가와다갓다하는 판이라 어떠한판결이 나릴는지 최후일순에 방청석은 극도로 긴장하엿섯다 무죄라는 언도가 나리자 방청객들은 열광하야 박수치는소리가 벼락치듯하엿는데 그러면 범인으로단정한 피고가무죄로 판결되엿슴에는 정말범인은 누구일가? 이수수꺽기의 범인에 대하여는 지하(地下)에 원혼이되여잇는피해자 박소춘이나알가 이세상사람으로서는 차저 내일수 업슬는지 미궁에드러간 사건에 대하야 금후경찰국의 범인탐색에더한층 흥미와 의문을가지게한다하며 립회검사로부터 는공소가 잇슬것이라한다

全國火災損害 五千四百萬圓

【東京同盟】 작년중의 전국화재의 손해액은대략 추렴만보아도 오천사백구십일만일천여원의 거액에 오르게되엿고 원야산림(原野山林)의 손해는팔십이만삼천원 또화재로인한 사망자는 사백오십사명 부상자는 삼천사십사명이라는 놀라운수효에 오르게 되엿스므로 내각(內閣) 국민정신총동원중앙련맹(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기타 제관아 공사단체등의 협력하에 오는십이월일일을 『전국방화날』(全國防火날)로정하야 일대방화 국민운동을 이르키게되엿다

宗中財産三萬餘圓 私文書僞造로詐欺

本町署取調의土地詐欺事件續報

기보—부내 본정서에서는 지난십일일 사문서위조사기(私文書僞造詐欺)혐의로 리모(李某)를 검거하고 여자와 공모하야 삼만이천원의 토지사기를한 『뿌로카—』의 행방을 엄탐중이든바 이십오일밤 드듸어 그 『뿌로카—』박창재(朴昌濟)등세명을 검거하고 방금 준엄한취조를 계속하고잇다 사건내용은 부내 흑석정(黑石町)에 잇는전주리씨(全州李氏)의 종중재산인 토지구천평(時價三萬二千圓)을 토지 관리권이 전혀업는 충남공주군의당면(忠南公州郡儀堂面)리건하(李健河)리순재(李順在)등이 전기토지관리권이 잇는것처럼 …

貨物列車脫線顚覆

【咸興】 지난이십삼일 오후령시 이십분 조선철도(朝鮮鐵道)회사 천불산(千佛山)역을떠나 함흥으로향하야 내려오든 화물열차가 천불산에서 남방으로 이백「미돌」지점에 이르렀을때 끄트로부터 셋재번의 화차의차축(軸)이불어저서 세대는 탈선전복 도세대는 탈선만하얏는데 다행히 인명의사상은업섯다 그리하여 즉시 신흥, 천불두역에서 보선계원이십여명과 오로(五老)기관구에서 직공팔십여명이 현장에급행하야 복구에힘은 결과 이십사일오전여섯시에 복구되엿다

感化院을建設

工費五萬圓豫算으로 全南務安郡高下島에

위치문제로 오래동안 총독부 사회과에서 고심중이든 총독부 감화원(感化院)은 전라남도 무안군 고하도(全南務安郡高下島)라고하든 목포 근해에잇는섬에 공사비오만원의예산으로 건설하기로결정되엿다 년말까지 건축설계를마친후 명춘해빙을 기다려 착공하야 사월경에 준공할 예정인데 준공후 제반설비만갓나면 오월에는 개원하게 되리라고한다

魔窟一步前 求職少女救出

巡行警官이〃스톱〃!

서울로 직업을 구하러왓다가 유괴마의 마수에 걸릴번한 녀자가잇다 이십륙일오후여섯시쯤 역에내려왓는데 그가차저가려든김(金)모의 주소를 일허버려서할수업시 역전에서 방황하다가 지나가든 부내종로경찰서원이 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근처를 순시하든중에 시골소녀한명이 어떤수상한 남자에게 이끌리여가는것을 발견하고 곳그를데려다가 취조한결과 그는 함남함흥(咸興)역전에사는 강산옥(姜山玉)이라는 소녀로 직업을구하러 이십륙일서울로와서 … 직업을 구하여주겟다는말에 아지도못하는 그남자를 따러가든것이 판명되엿슴으로 그에게서는 그소녀를 보호하는한편 그의본집에 차저가라고통지하엿다한다

間島省內集團部落도 滿洲國側에移讓

今後에도指導向上의必要잇서 中堅人物을選拔講習會를開催

【延吉同盟】 만주국(滿洲國)에서는 이번에 치외법권 철폐에 따라 간도성(間島省)에의 조선총독부 경영집단부락이 십팔개소(이전국백팔개소) 일만팔천팔백이십명도 만주국측에 이양하기로되엿다 그이십팔개소의집단부락은 이제야 겨우 그기초를 굳게하야 갈부락민은 거의 생활의 안정을 엇게되엇스나부민의 향상을 도모함에는 아직도 상당한 지도를 요하는점이 잇슴으로 조선총독부에서는 그 이양에 당하야 장래부락지도상에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야 부락중심인물을 모아가지고 최후의강습회를 …

鐵物窃盜團被捉

이십륙일 오전열시쯤 룡산서에서는오인조 절도단일당을 전부타진하엿다 그들은 원적을 안성군(安城郡)에두고 부내신수정(新水町)에주소를둔 김이룡(金伊龍)외 리진해(李鎭海) 김삼봉(金三峯) 박종화(朴鍾和) 리순룡(李順龍)의다섯소년으로그들은지난오월 경성부내강기정(岡崎町)번지 시흥수전(水田)씨소유의 창고속에서 고철동다섯관 오원어치를 절취한것을 비롯하야 부내각처에서 전후일곱건이나 수백원어치를 절취한것이 판명되엿는데 동서에서는여죄를계속취조중이다

레—드號命名式 二十八日에擧行

【東京】 … 헌납의 전투기 『레—드號』의 명명식은 이십팔일 오전십시반부터 우전(羽田) 동경비행장에서 미내(米內)해상 이하 해군의 장성과 헌납자대표등의렬석하에거행될터이라한다

孔德町勉勵靑年會 懸賞少年童話大會

부내공덕정(孔德町)에잇는 조선기독교 장로교회안에잇는 면려청년회(勉勵靑年會)주최로 이십칠일오후일곱시부터동교회당에서 제이회전조선 현상소년동화대회를 개최하겟는바 성황을예상하고잇다

第11回中等籠球聯盟戰 第18日

養正의銳鋒的攻擊 京師軍遂敗退

普成、協實兩軍이各勝

今夜에終幕戰擧行

중앙기독교청년회주최의 제十一회경성중등학교롱구련맹전제十팔일의 경기는 이십륙일 오후여섯시반부터 청년회실내 「코—트」에서 徽新對協實、養正對京師、普成對京工의 三戰이 擧行되엿는데 協實軍이 前半戰의 敗北를 後半戰에서 挽回하야 徽新軍을 물리치고 全勝의 京師軍은 養正에게 敗退하야 今二十七日에行할 中央對大東戰에 大東이 中央을 이기면 各一敗의 京師와 同率로되여 聯盟規定에 依하야 第二部만은 攻防率(得點과失點)에 따라首位를 決定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第三次戰에는 普成이 京工을이겻스며 今二十七日로서 終幕을告하기로되엇다

協實37 (23 14 / 14 21) 35徽新

【第一次戰】 一部의 徽新對協實戰은 同日午後六時半부터 金振秀、申光浩兩氏 審判下에 開始되엿바 前半戰에 徽新軍二十一對十四로 優勢를 보이고 後半戰에 드러가 徽新軍이 協實軍의 猛擊을 바더 苦戰에빠저 卅七對卅五로 協實軍이 快勝하야 六戰二勝三敗의 首位를 차지하고잇다

反	後	前	【徽新】		【協實】	前	後	反
0	4	8	金□□	F	□□□	1	9	2
2	1	0	李□□	F	林□□	0	1	3
0	3	5	金□□	F	朴□□	1	2	0
2	5	2	黃材三	C	尹□□	2	7	0
4	0	5	張元一	G	崔□□	1	2	3
2	1	1	兪弘□	G	李圭□	0	2	3
10	14	21				14	23	11

養正34 (18 16 / 19 11) 30京師

【第二次戰】 二部의 京師對養正戰은 同日午後七時二十三分부터 李惠鍾、崔源鍾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前半戰二分에 三對三同點 十四分에는 十六對十一로 養正軍이 京師軍을壓倒하야 氣勢를 올리엇다 後半戰에드러가 京師軍이 追及猛烈하야 四分에는 十六對十六으로 同點되여 激戰을 演하드니 養正十分에는 廿八對廿二으로 京師軍을壓倒하여 結局卅四對卅으로 京師軍을 一蹴하야 養正軍이 九戰七勝二敗의 好成績을 올리엇다

反	後	前	【京師】		【養正】	前	後	反
1	0	0	福五□	F	高圭□	4	2	2
2	2	6	□川本	F	金光洙	1	0	2
2	2	2	金振八	C	申宗□	1	10	3
0	6	3	李永秀	C	吳相□	0	0	2
1	0	0	文榮□	G	林秉南	10	4	2
1	7	0	郭炎□	G				
2	2	0	木本	G	車相□	0	2	1
9	19	11				16	18	12

普成45 (25 20 / 6 10) 16京工

【第三次戰】 二部의 普成對京工戰은 同日午後八時三十三分부터 金致雲、全鳳□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普成軍前半戰에 京工을 누르고 廿對十으로 優勝하엿스며 後半戰에드러가 普成軍더욱 好調로나아가 結局四十五對十六으로 普成軍이 大勝하야 八戰二勝六敗이다

反	後	前	【普成】		【京工】	前	後	反
3	2	10	朴□□	F	朴源夏	4	2	0
1	1	0	□□□	F				
2	11	6	黃□□	F	洪道殷	2	0	2
4	4	2	金□□	C	鄭□洪	2	2	2
				C	朱仁□	0	0	0
2	7	0	劉任烈	G	吳恒□	2	2	2
1	0	2	林順□	G	□址榮	0	0	0
13	25	20				10	6	6

中等籠球리그第十八日現在

【第一部】

	中	培	靑	徽	協	養	普	(比率)
1 中東	:	○	○		○	○	○	1·000
3 培材	●	:	●	○	○	○	○	0·666
2 靑學	●	○	:	○	○	○	○	0·833
4 徽文		●	●	:	○	●	○	0·400
5 協實	●	●	●	●	:	○	○	0·333
5 徽新	●	●	●	○	●	:	○	0·333
6 □□	●	●	●	●	●	●	:	0·000

【第二部】

	京	二	養	大	一	央	京	電	普	商	(比率)
1 京師	:	○	●	○	○	○	○	○	○	○	0·888
3 二高	●	:	○	●	○	○	○	○	○	○	0·778
3 養正	○	●	:	●	○	○	○	○	○	○	0·778
2 大東	●	○	○	:	○		○	○	○	○	0·875
4 一高	●	●	●	●	:	○	○	○	○		0·500
4 中央	●	●	●		●	:	○	○	○	○	0·500
6 京工	●	●	●	●	●	●	:	●	●	○	0·111
5 電機	●	●	●	●	●	●	○	:		○	0·250
5 普成	●	●	●	●	●	●	○		:	○	0·250
7 商工	●	●	●	●		●	●	●	●	:	0·000

【備考 …○은勝·●은敗】

러비陣容

今日京城運動場서 京城對新義州

朝鮮러비—聯盟主催의 京城對新義州러비—對抗戰第一日은 今二十七日 午後三時(雨天不拘)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兩軍의 陣容을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新義州軍】 ◀監督=崔濟道 ◀主將=李根浩 ◀選手=田泳甲 崔昌根 崔昌元 尹炳燮 湯景厦 金在德 金若雨 崔昌烈 車鎭國 白寧圭 金元烈 田永根 李鳳信 金昌信 李成麟 兪淸俊 金尙旭 金成根 崔鶴德

【京城軍】 ◀監督=李鍾院 ◀主將=金化泳 ◀選手=韓佐洙、尹相軾、尹鍾軾、劉仁山、兪元根、安命珪、張宗鎬、金爾培、卓鍾弼、李銅烈、李仁泰、金敬洙、張政煥、金正裕、宋基宇、李德吉、鄭基玉、崔任義、馬鳳玉

今日의運動

▲籠球=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第十一回京城中等學校籠球聯盟戰第十九日(最終日) 一高對商工(午後六時半)中東對徽文(午後七時二十分) 中央對大東(午後八時十分) 普成對電機(午後九時) 以上鍾路靑年會室內『코—트』(場內整理費十錢)

▲러비=朝鮮러비—聯盟主催 新義州對全京城러비—對抗戰第一日、午後三時 京城運動場 (觀覽料十錢)

世界의자랑

非常時代는健康이第一必要

天下의補藥中百補丸갓치 몸에利한藥이다시업습니다 陽氣·精神·氣血·胃腸等이모다 조와지고、食事가倍加됩니다

▲病弱人은疾病治療劑로
▲氣血虛弱人은補血强壯劑로
▲陽氣不足人은精力補給劑로
▲中年人은老衰防止更少年劑로
▲藥効信用天下第一!

漢方호루몬强壯劑

一、近來盛히 떠드는 호루몬劑도 漢方에서는 벌서 一千餘年前부터 使用해온것입니다 百補丸에 含有한 호루몬은 實로 高貴玄妙한 性質이잇습니다

二、百補丸은 實로 累試累驗의 名藥인故로 絶對自信을 가지고 藥効를天下에 推奬합니다

三、元氣不足、陽氣不足、胃腸衰弱、消化不良、神經衰弱、不眠症、貧血症、肺弱、疲勞、盜汗、營養障碍等에는 唯一한 多元性治療强壯劑입니다 病과虛弱으로 걱정말고 至今곳 百補丸을服用하시요

▲補藥은漢藥이第一 (朝鮮人體質에잘맛고 効力깁고永久합니다)

高貴漢方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 … 病健康長壽劑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効한法

不治의難病도小小한虛弱으로부터始作!

체증을根治하려면

消化劑를쓰지말고 健胃强腸劑를쓰시요

百補丸의効力은 이러케굉장합니다

生男生女·天下待望의世界的名藥

高貴漢方

婦人百補丸 發賣開始

京城府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

從軍記者慰問號

皇軍은 方今敵을席捲하야 猛進猛擊을繼續하고잇다。鬼神이안이면 할수업는일 國民의感謝感激은 絶頂에達하고잇다。

第一線將兵 各位의苦難辛勞를생각할때 우리의念頭에 恒常떠오르는것은 從軍記者寫眞班或은 此等聯絡任務를 하는 飛行機班及聯絡員諸君의 困苦艱難입니다。不眠不休는勿論 그生命의危險을무릅쓰고 任命遂行하는데잇서서犧牲者는 頻出하엿다。그리하야 此等犧牲者는그光榮에잇서서 名譽의戰死傷者와 寸毫의 差異가업습을 밋는다。一身을던저 使命을敢行하려는 崇高한犧牲的精神이 此等從軍新聞人에잇슴으로써 我等은迅速히且詳細히 第一線의 戰況을알고 銃後와의聯絡을 다하게되는것이안인가 누가이에感謝하지안흘者잇스랴。

다만 여기遺憾인것은滿腔感謝의念이存在해도 如何히이感謝의念을 表明할가하는대對하야適當한機會와 方法과를 發見치못햇든것입니다

即下揭의廣告華主와 本新聞社와 日本電報通信社의三者는相互協力해서 右支那事變에從軍하고親히 第一線에서苦鬪하는 新聞人諸君에對하야애오라지感謝와 慰問의赤誠을表하야써 그勞를犒勞코저하는바이다 그런데우리가이것을함과함께 一般世人에對하야이機會와 端緒를열어주려는여러분今後 이에따르신다면 我等이가장滿足하는바입니다。

回顧하면 酷熱의戰地에잇서서 苦鬪한諸君의우에겨우 淸凉한秋氣가 왓는가생각할사이도업시또벌서 酷寒이襲來하고잇다。冬季에잇서서 諸君의辛苦를 생각할때我等은다만 感激에넘칠뿐 이다삼가諸君이特히 健康에 注意하야 써 그大使命을 達成 하시기만 祈願한다。 合掌

肺結核

腎臟·膀胱結核
喉頭結核·カリエス·肺壞疽

北海道帝國大學醫學部 助敎授 鮎川武一郞博士創製 (特許)

チモフオーケン (靜脈內注射)

肺結核早期治療

チモフオーケン이 肺結核及各種結核에 著效잇는 報告는갓금記述한바이지마는 最近 醫學士 金英鎭先生은 結核性淋巴腺炎에이것을 使用하야 良好한效果를 認定햇다고 雜誌『臨牀醫學』八月號에 公表햇슴니다 (旣刊文獻執筆者九醫學博士、三醫學士)

チモフオーケン의 藥效는 上記와如히 大多數에잇서서 是認된바이지마는 特히 喀痰中에아직結核菌을 發見치못한 第一期即初期 一期乃至二期程度에잇서서는 本治療에依하야 가장良好한 成績을어덧다고 發表한바입니다 이외가튼 早期의治療는 其治療期間도短縮되고 健康恢復이 速한은勿論 또結核菌을 保有하는 喀痰을撒布傳染을 防止하고 結局에는 國辱病인 結核性疾患驅逐의曙光도 期待할수잇는것으로서 健康日本建設을爲하야 特히 早期에잇서서 本劑使用을 懇切히 推奬하는바입니다

一手販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丁目 株式會社 鳥居商店 振替東京二二六八四番 (說明書無料贈呈)

DKC-1

藥用クレーム パパヤンモア

專賣特許

日貨排斥抗日의根源地서도

여드름 죽은깨 기미업샘 (파파야인酵素와藥用의相乘的大效能)

에는 本品이 썩조타고해서 支那事變이 이러나기前부터 支那人間에 愛用되엿슴 支那人의살결이世界第一로이뻐다는것도當然

定價 一號一圓卅錢·二號(倍量)一圓八十錢

●臨時써-비스● 小瓶이오나效能을잘알수잇는見本品을無代로送呈합니다 新聞名記入하야 郵券五厘切手를부처서 보내주십시요

洗顔에는……藥用 パパヤ洗粉 三十五錢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株式會社 杉田商店

頭髮에第一조흔純粹한椿製

五ツ香油

イツツコーユ

本舖 井善

品質日本一

ヤマサ醬油

야마사

標準的色 本格的味

飛躍하는無線界!! 旺盛한就職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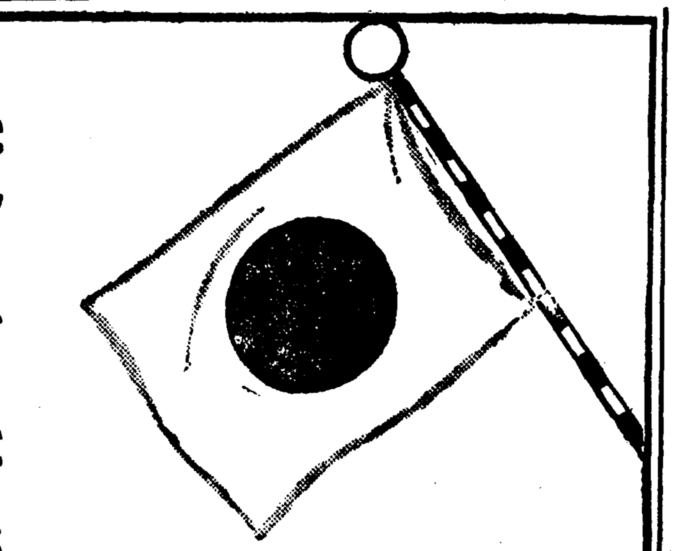
▲本校는無線(通信技術)士를養成하는本邦唯一의公認學校
▲一切의煩弊를省略하고單刀直入短期養成主義

東京第一高等無線工科學校

東京·本鄕·お茶の水 (詳細規則要郵券三錢)

▲出征軍人의 子弟에對한 學費免及給費生制度잇슴
▲高等科·中學四年制修了程度
▲普通科·尋常小學程度

校長 理事長 日露戰役凱旋將校 北里義助



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

祝皇軍大勝

뉴一스映畫로

낫익은 저純國產
富士필림의姉妹品
을당신의카메라에
備置해주십시요

ネオパンクロ
ネオクローム
フジクローム

唯一の純國產

富士フイルム

效果一〇〇パーセント!!

ブルドックソース

驚くべき風味の威力!!

名著! 中央公論社의 十一月新刊

絶對安眠法

式場隆三郎著·定價一圓六十錢 送料二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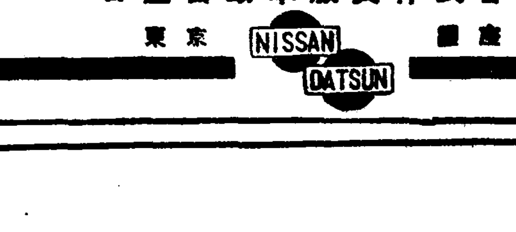
日本이强함은 어떤경우에라도 餘裕綽綽한態度를 保持하는것입니다。支那다음에는 어디냐 그다음은 또 어디냐라고 그칠바모르는精力을 漲溢케해서 國民은待機헤야할것이다 綽綽한 餘裕는 大槪睡眠에서 어들수잇는것입니다 잘자라 잇지말고 잘자라어떠케잘자며 어떠케 훔뻑잘것인가에 依해서 精力이 蓄積되여 非常時를 克服할수잇는것이다 睡眠의哲學과 그實際的指導를 說明한 式場博士의『絶對安眠法』은그意味로서 大好評·非常時局에際하야果然이것은잇고 잇섯다는듯이읽고십흔名著이다 去來하는書店에品切일時、或은書店에不便이잇슬時는 直接發行所로註文하시요

東京丸ビル五階 中央公論社 振替東京三四番

祝皇軍大勝利

大型車 ニッサン 【乘用車·タクシー·トラック·バス·消防車】

小型車 ダットサン 【乘用車·豆タク·トラック·消防車】



日產自動車販賣株式會社 東京 大阪

NISSAN DATSUN

山本實彥著 好評嘖々!! 忽ち十四版 (四六判上製美裝 寫眞及地圖百廿八葉) 定價一圓六十錢 送料十四錢

支那事變

東亞永遠의經綸을示唆한現地報告
·事變의目標와其前途에對하야全國民에呼訴한憂國의書

(內容目次)

◆天津より 長城丸、塘沽、天津へ、驛頭、沫若、南開大學見物、高凌霨、香月將軍、池宗墨、陳中孚、宋哲元の北平落ち、川越大使、郭の街「大公報」廢刊、放送、首代、或る留置場 蔣介石の戰爭心理、現地を見よ ◆北平より 北平へ、正陽門、驛、北平のくさぐさ、松井大佐、蘆溝橋の話、周作人の心境、中山公園の朝 ◆通州より 不安な通州街道、通州城、その夜 警察署襲擊、近水樓、吁、S將軍 ◆青島より 塘沽から青島、東洋一の景觀、風雲急、吉利平次郞翁、韓復榘、朔北は雪近し ◆大黃河論 蘇聯はどこに出てくる、黃河文明と人物、膠濟鐵道、石油の資源地帶、石炭鐵綿花、水路開拓、黃河沿岸の碼頭、連雲港、黃河の名物、傅作義、◆綏遠の思ひ出 黃河の上流に立つ、寺田中佐 ◆防共戰の限界とその意義 (附錄) ◆中國の近狀を報告す ◆蔣介石敗殘の將來性 ◆南京·上海日誌

東京市芝區新橋七丁目 改造社發行 振替東京八四〇二番

本邦生命保險의開祖

빗나는歷史 明治生命은 我國에서 第一오래된 生命保險會社로서 明治十四年創業以來 日增月將發展을거듭해서現在의尨大한 會社로 되엿슴니다

鞏固한社礎 明治生命은 豐富한 資產과 適確한 準備金을 擁하야 盤石가튼 社礎는 더욱더욱 鞏固해젓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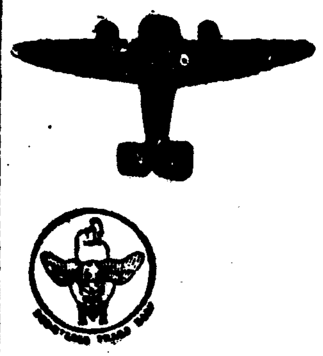
堅實한經營 契約高의非常한 躍進의一面에 事業費支出은 收入保險料에 對比해서 恒常低下하야 合理的經營의眞價는 益益發揮되고잇슴니다

새로운保險 保險種類는 斷然 多數한대 其中昨年創設한 新種養老는 가장 嶄新有利한保險으로 現代生命保險의精華라고 할수잇슴니다

明治十四年創立

明治生命

東京丸ノ內



慰問袋에

森永の菓子

キャラメル チョコレート ドロップス ビスケット ミゼット

森永製菓株式會社

營業課目

一、クルップ、ユンカース、ディゼル發動機製造販賣
二、チッペン、ディゼル發動機製造販賣
三、クライス自動車用自動變速裝置製造販賣
四、自動車關係諸器械器具製造販賣
五、航空機關係諸器械製造販賣
六、各種軍用タルベキ器材製造販賣

日本ディゼル工業株式會社

社長 安達堅造

本社 東京市麴町區丸ノ內三菱廿一號館
工場 川口市彌平町二五三番地

キングレコード

愛國歌熱唱盤

遂に全國を風靡!

戰地から故鄕から

唄 塩まさる 新橋みどり

A-16

힘찬愛國의熱情에 耳目이 끌려 뜨이는感激의힛트盤!

進軍第一步 松島詩子 樋口靜雄
軍國子守唄 塩まさる
あゝ我が戰友 近衞八郞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明治キャラメル

가라멜

明治가라멜(어떤種類라도)의 곽속에印刷해둔十點마-크를 百點만모아부처서 近處의菓子店에持參하시면 五錢짜리 明治조코레-트를 나-트 明治가라멜을 드립니다

★百點賞附의 가라멜 마층내發賣!

明治製菓株式會社

地方論壇

派爭을速히 清算하라

예로부터 人間이 사는 社會에는 黨이 생겻고 派가 갈리어서 文明史의 모든 罪史는 이 黨派의 記錄에 不過하엿다고 할수잇나니 만흔 人類가 相互의 思想이 갓지 안코며 意見에 差違이 잇는以上 그 思想과 意見에 따라서 黨이 結成되고 派가 分離됨은 不可避의 일이 아니와 그 出發點이 社會를 建設케 하며 人類의 幸福을 增進함에 잇스면 그 黨派는 人類의 先驅가 되는수 잇지만 이와 正反對로 오직 自派의 野慾을 滿足키 爲함에 잇는때는 그는 社會의 滅亡이요 文明의 敵이 되고야마는것이엇다.

×

이 黨爭의 好例를 現今 世界의 實勢에서 들어 말한다면 伊太利의 「파쇼」 獨逸의 「나치스」 支那의 「國民黨」 가튼것은 그 社會를 救濟하겟다는 政治的 精神의 集團으로 社會의 先驅이요 國家의 發展을 이루엇스되 李朝末葉의 朝鮮四色黨은 오직 自黨의 利慾만에 汲汲하엿고 조금도 社會의 關心에는 誠意가 업섯음으로 結局 文明의 敵이요 社會의 害毒이 되엿든바이다 우리 梁山地方은 적은 山村에 不過하면서 過去에는 勿論이요 現今의 情勢에서도 黨이 잇고 派가 갈리어 地方에 一大病이 되어잇서 그 將來는 憂慮를 마지안는바이다.

×

이 問題에 잇서서 筆者도 한 本紙를 通하야 地方人士의 覺醒을 促한바 잇섯거니와 本地方의 所謂 派爭은 政策 未嘗이란것이 伺常本部의 偏愛를 잡으려하며 서로 主人格으로 鬪爭하되 實地에 잇서서 地方의 文化敎育에나 經濟發達 或은 民生活等에는 緊急한 當面問題等에는 조금의 關心이나 努力함을 보지못하되 한번 利權이나 勢力問題에 들어가서는 死力을 다하야 自黨의 勝利를 爲하야 爭鬪하야 마지안는다 그러나 社會의 情勢는 이러한 派爭이 存在하지못하고 最後의 沒落에 이를것은 그이들도 모를바 아니로되 우리 社會는 아직도 覺醒하지못하고잇다 이 爭鬪의 一刻에 다만 一刻이라도 速히 淸算함이 社會를 爲함이요 自家의 利益됨을 切實히 覺悟하여야 할바이다.

×

그리고 다른 一面에 잇서서 所謂 派爭이란것이 本部에 잇서서는 地方發展의 一大支障이 되여 다른 社會에서 보지못하는 不祥事가 되여잇다 어떤 地方을 勿論하고 黨派들이 自黨의 勢力을 擴張하려 함은 現時에 免치못할 實情이라 할수잇스되 우리 地方의 黨派들은 너머도 陰險하야 잇스니 元來 本部는 純全한 農村이요 狹少한 小部落으로 經濟的으로 發展할 地方이 되지 못하야 公益의 事業을 爲하야 發展하려 하는 이가 업다할지라도 그 心理가 모두 利己的으로서 조금도 寒心이나 地方의 利益을 爲하야 일삼고 地方民衆은 그들의 利用物로 이러케 狹小한 地方民을 利用하고 犧牲시켜는 派爭은 하로速히 淸算하기를 바라는바이다.

(梁山支局 一記者)

○○김장도 느저 간다○○ 全州川所見

咸北의鰮漁獲遂高 五百萬樽突破

製品高로도昨年記錄을壓倒 水產王國의大豪華版

【清津】 작년의 정어리어업이 유사이래 처음보든 대풍년이엿다고 사람들은 떠들든니 금년의 풍획은 작년의 총어획고를 훨신넘엇고 아직도 계속하야 매일과가티 풍성풍성한 상태에잇다 죽년래로 뭉상에갓가운 오백만통돌파가 금년에는 벌서 실현되고 만것으로 이대로 나아가면 오백만통을 넘기고 오히려 삼사십만통의 여유를가질수잇게되얏다 어획고로보아서는 물론 작년의 사백이십만통을 돌파하얏지만 제품(製品)에 잇서서도 작년의 생산액을 돌파하고 아프로도 얼마쯤더 여유를 보이고잇다 다만 한가지 금년에는 철룡가의 폭등을 위시하야 중유(重油)가격의 폭등으로 생산 「코스트」가 훨신 고등한 점으로보아 작년의 순리익에 다소의 손색이 잇지나 안흘까 하지마는 대체로 풍년의 기쁨이 떠돌고잇다

白晝元山에大火 一棟六戶全燒

損害五千圓·原因未詳

【元山】 이십사일 오후한시반경 원산부영정(榮町)일백육십사번지 홍경식(洪京植)의집 셋방에서 돌연 불이일어나서 때마침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삽시간 불바다를 이루어 일시 크게위험하엿다 원산소방조의 필사적 진화공작으로 동세시경 일동육호를 전소한후겨우 진화하엿는데 그불난원인은 현재원산서에서 조사중이며 손해는 오천원가량이라는바 마침 한낮이란 게상 인축의사상은 업섯스나 그 부근은 인가가 밀집한지대인만큼 연소의위험성이잇서서 일반주민은 일시공포에 싸엿섯다한다

午東洞海面埋築 時局關係로延期

【馬山】 구마산오동동(舊馬山午東洞)해면 약팔천평을 매축하야 린촌(燐寸)공장을설치하고저 진주(晋州)청수좌태랑(淸水佐太郞)씨가 마산부당국에 매축허가원을제출하엿든바 부당국에서도 마산항발전에 기여(寄與)함이큼을 밋고 매축을허가하엿든바 허가후삼개월이내에 공사에착수할것으로 조건이되여잇스나 그동안 사변이발생하야 금융통제으로 공사를 착수할수업서 보득이 이개년간연기를신청하엿는대 일반의대망하든 이공사도언제나 출현될는지몰을 부민으로하여곰 크나큰섭섭을가지게한다 한다

漁船끼리衝突 漁夫一名卽死

【釜山】 선박사고(船舶事故)발생에대한 경고를통첩한후 수일이못되여 또부산항내에서 어선충돌사건이 발생되엿다 지난이십사일오전한시경에 부산부남부민정(南富民町)바다에서 부내남부민정(南富民町) 박부희(朴富熙)(?)의 소유어선과 전남고흥군라로도(高興郡羅老島) 고양윤(高陽允)(?) 소유어선이 고기를잡어가지고 부산항으로 드러오다가 정면충돌되엿섯는데 전기박부희어선의승조원 남부민정사는 김판성(金龍成)(?)이가 배임물에서 일을하고잇다가 고양윤배임물에 바치여서 즉사하엿다고한다 그래서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관계자들을 호출하여다가 엄중히취조중이라한다

脫穀中에火災 千餘圓의볏단燒失

【運興】 지난이십일일 오후한시경 평북룡천군 부라면불이서선농장(龍川郡府羅面不二西鮮農場)소유논에서 타작하든 동농장소작농부들의 부주의로 꼭초(穀草)에 화토불이당기어 마침맹렬한 불꼿파하게 탈곡(脫穀)하려고 적치한 벼단에 연소되야 화망이충천한중에 소방조와 경찰의 출동으로 동네시경 겨우진화하엿다는데 손해는약천여원으로 다행히 인축의피해는업섯다한다

九十餘白衣勇士 平壤에凱旋

【平壤】 거친바람이맹렬히부는북지전선에서 과거오개월동안각지에전전 불굴의무훈을세운후 명예의전상을한용사, 구십육명은이십육일오전세시사십분 평양에도착하여 오십삼명은 평양육군병원(陸軍病院)에 사십사명은 흥산육군병원으로 향햇다

咸平川改修實現 工費百廿二萬圓으로

來月二日起工式擧行

【光州】 전남함평군민의다년간요망중이든 함평천(咸平川)개수공사는 총공사비 백이십이만일천여원으로 오개년간 계속공사를할터인데 초년도계상된 금액은 십일만구천원으로 래월이일 기공식을 하려고준비중이라한다

라디오聽取者 西朝鮮에萬六千

【平壤】 북지사변발발이래 전국민은 사변뉴—스에 큰관심을가지고 라디오 청취자가 현저히 증가하고잇서 평양방송국관내에서는 최근일만육천오백십호에 달햇는데 도별로보면 평안남도(平南)칠천칠백이십호 평안북도(平北)삼천구백이십호 황해도(黃海)삼천칠백팔십사호의 순서이다 청취자가 격증하는반면에 도청자(盜聽者)도 상당히 만흔수에달함으로 평양국에서는 국원또는 군부주재원을 동원하여 도청자조사를 엄중시행하고잇는데 도청자는 일천원이하의 벌금,

琓月洞分敎場을 第二普校로昇格 來年新學期부터實現?

【馬山】 인구삼만의마산에 단지 일개소의 보통학교를가지고 입학아동 오백명의 아동을 수용하고잇기때문에 아동교육상 지장이 만허 제이보교설치를 오래전부터 부민간에갈망하여 오든바 부당국에서 림시완화책으로 완월동에분교장(分敎場)을 설치하고 일부아동을 수용하고잇는바 금번부당국에서 년래의 숙망을해결하는동시 교육상해를 제거식히기위하야 이분교장을 제이보통학교로 승격식히고저 총예산사만삼천원을 계상하야 도당국에기채(起債)인가를 신청중인대 인가의지령이 잇는대로 공사를 착수하야 래년신학기부터는 실현할터이라한다

消防組運轉手俸給을 三業組合에서支給 組合員들은모두反對

【麗水】 겸이포읍 소방조에서는 일반읍민들의 기부를바더 소방자동차를 구입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수를 채용하게되엿는데 그운전수채용에잇서서 봉의 실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아가 불분안중에잇다 이제 그사레와갓다 전기소방조에서 운전수의월급을 오십원으로정하고 다려왓는데 겸이포읍에서는 경비가부족하야 매달오십원의월급을 지불할수업다하야 그대책을 강구하든중 전기운전수가 겸이포삼업조합(兼二浦三業組合)서기를 겸무케하고 동조합에서 월급삼십원을받고 그외이십원은 읍에서지불하기로 하자는 결의가 잇서서 소방조(?)부속에서 삽업조합장을 방문하고 서기를 채용하여 달라는 교섭을하엿든 바 동조합에는 삼년동안이나근속한현직서기가 잇슬뿐아니라 동 조합은 일백이십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사무를취급하는 관계로 자동차운전수가 겸무하게된다면 조합사무를 완전히 행할수 업슬것이니 나아갈수가업겟다는리유로써 이를반대한다는데 전기운전수채용에 대하야 소방조와 소방조원들은 원사무소나 혹은 자동차부가튼데 채용하도록하지안코 현의서기가 잇슬뿐만아니라 경비가 곤난한 삼업조합에 채용하여 달라고하는 리유가 나변에잇는지 해괴한사실이라하야 일부조합원측에서는 불평을 부르짓는자가 잇는데 금후에 어떠한 처치가잇슬는지읍당국과 소방조측의 처사가매우 주목중에잇다고한다

淳昌에도初雪

【淳昌】 전북순창지방에는 수일전부터 때아닌겨울비가 련일계속하고 일기가음울하여지드니지난이십사일아침에는 금년최초의 강설(降雪)이잇섯다 전년에 비하면 약일주가량이나 속하다고하며 갓득이나 기한에 떨고잇든 세궁민의 생활전도가 더한층막연하다고한다

年末迫頭와兇盜跋扈 開廳不過二朔에 強盜發生八回! 所管船橋署大唐慌

【平壤】 평양선교경찰서(船橋署)는 사월일일개서한후 아직일천함에불구하고 강도사건이 속출하여 여덟건에밋치엿스나 범인은 미검거대로잇서 판내의주민들은 마음놋치못 전전긍긍상태로 지나고잇서 경찰의위신으로서도 가벼운문제가아니므로 평남경찰부에서는 선교서가 신설이기때문에 범죄수사의 기초가확립되지못한이때에 련속적으로 강도사건이 발생하여 간과하고잇는 경지에서 금후의 경계에만전을기할필요가 잇다는 견지에서 사건발생서인 선교서를중심으로 경찰부, 평양서, 대동서를련결한 일부삼서련합수사를 하기로되여 이십사일오전열한시부터 도보안과 상실에서 정(鄭)보안과장 야상(野上)주임을 위시하여 삼서장 사법주임이집합 협의를하여 게획을세우고 대수사에 착수햇는데 곽강도범인을 체포하려고 대노력중이다

强盜와詰難廿分 방문고리잡고『문열어라·못열겟다』 兇器로脅迫햇스나目的未達코逃走 大同署緊張大活動

【平壤】 대동강동안 선교서관내에 강도사건이 속출하여 부민과경찰을 극도로긴장시키엿는데 이번에는 서평양기림리(箕林里) 전차선로부근에잇는 기림정미소(箕林精米所)에는 이십삼일오전 두시삼십분경 식도를휴대한 복면강도가침입하여 주인을협박햇스나 주인김씨는 침실문을 꽉잡고 절대로열지안코 약이십분동아니 『문안열면죽인다』 이놈 드러서기만하면 내가너를 죽인다하여 피차에 악을쓰는동안 여편기림상회(箕林商會)와 련락한 비상종(非常鐘)을 울리워 동리사람들이 소동하는바람에 아무것도 가지지못하고 다라낫다 범인은 남도사투리를 쓰면서 협박을햇다하며 침실문드러오기전에 대문(大門)셋을 모조리열어 노코 드러온것으로보아 상당히 익숙한범인의 행동으로판명되엿는데 소관대동서(大同署)에서는 범인을엄탐중이나 아직체포하지 못햇다

安東縣에는 拳銃強盜 三名이金品奪去

【安東縣】 치외법권철폐에 따라 경찰권의 인계와 청사이전등으로 분망중에잇는 안동경찰청은 최근에보지못하는 권총강도사건이 발생되엿다 사건은 지난이십일 밤여덟시경 진안가(鎭安街)만주인 대상점에서 각기권총을가진 강도세명이 침입하야 주인외점원전부에게 『떠드는자는 총살한다』하고협박하여 주인의점원은 강도의얼굴조차보지못하고 죽은듯이 강도가 하는대로 내버려두엇는데 강도는 집안을 뒤지며 현금삼백여원을 강탈도주하고말엇다한다 이급보에 경찰은 린접각지에수배하는동시 물샐틈업시 경게망을 느리고범인체포에 진력하엿스나 이십사일오후까지 체포치못하엿다한다

強盜犯搜查中 怪盜가刺人逃走 『빈대떡』드러트리고엿보다가

【平壤】 선교서관내에 강도사건이 연거퍼 여섯건이나 일어나 경찰부를 중심으로 세경찰서련합의대수사가 계속되는 이십사일오후 역시선교서관내인 선교리(船橋里)팔십번지 일본곡산회사(日穀)관게가 계영권(桂永權)의집에 괴한한명이 침입하여 방문을열고 빈대떡을 집어너흐므로 수상히생각하고 문밧그로 쪼처나아왓을때에 이괴한은 나아갈문을닐러버리고 야단을하는것을 다리를거러 넘어트리고잡으려하자 잘못되엿스니 살리어 달라고 애걸하여 그대로놀리어 보내엿것을 계영권과가티 살고잇는 김태진(金泰鎭)(?)이가 그러한자식을 무엇때문에 그대로놀리어보내느냐하면서 추적하여 바른팔로 면살을찹는순간에 이괴한은 가지엇든 예리한칼로 김태진의 바른팔을찔러 치료삼주간을요할 중상을입히고 다라난사건이 또발생하여 련합수사대는 더욱긴장을시켰는데 피해자는 부내전화의원(田和醫院)에 입원치료중이다

陳列窓破壞코 時計竊取逃走 鎭南浦府內서

【鎭南浦】 겨울을 재촉하는 첫눈이 대지를덥고 찬바람이 휼러거리에는 사람의그림자도 드므러진 지난 이십사일 오후팔시 오십분경 진남포 삼화정 등천(藤田)시계점에는 괴한이 진렬창을 깨트리고드러와 십팔금측시게 한개를 훔처가지고 다라난 절도사건이 돌발하여 진남포발거리를 소동케 하엿다는데 급보를접한 진남포서에서는 형사대가 총동원하여 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社會課釜山出張所 來月一日부터執務

【釜山】 부산제일잔교(第一棧橋)동에접한 부산역구내에 신축중이든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社會課)출장소는 이지음준공되엿스므로 오는십이월일일부터사무를보게된다는데 동출장소의주관사무는 밀항송환자(密航送還者)의보호와 북선지송환 직업보도(職業輔導)와 도항조사등에 관한일체의 사무를보게된다고하며 초대소장은 야구(野口)부산수상경찰서장이 겸임할 터이라한다

十萬圓豫算으로 慶北서緬羊增產

明年度부터着手計畫

【大邱】 경북도에서는 총독부의 방침에 순응하야 기본한바와가티 명년도부터 십이개년계획으로 면양(緬羊)육만두를 증산할 계획이라는데 이에대하야 국고보조(國庫補助)육할외에 도비(道費)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십삼년도예산에 약 십만원을 요구중이라한다 이와가티 예산이 통과할때에는 현재의 면양사육수 일백육십칠두에서 일약 천두가량으로 증가되리라한다

力藝實演盛況 【咸興】

함흥출생 한순호(韓舜鎬)군의력기실연대회는 이십삼일의 이틀동안 본보함흥지국의 후원으로 개최하엿는데 이틀모두 보기드믄 성황을이루엇다

玄米調整料改正 平南道에서計畫

【平壤】 평안남도내의 현미조정료(玄米調整料)는 일석에대하야 일원사십오전으로되여잇스나 평안북도만은 타도와는달리하여 가마니와 하조료(荷造料)까지포함하여 료금을정해논관계로 최근과가티 가마니갑시 고등한때에는 실비가 노피먹게될것이라하여 도당국에서는 얼마전에 여기에대한조사를한결과 기양농업창고(岐陽農倉)는 일원칠십사전 순안(順安)은 이원십오전으로 가마니갑세 농업창고는 큰손해를 당하게된것을 발견햇다 이때문에 가마니와 하조료를 포함하는것은 불합리라하여 근일개런적자를 업새기위하여 평안남도에서 경하기로되엿는데 평안남도에서는 일반조정료(一般調整料)와 포장실비(包裝實費)의 두종으로 나누기로되엿다

地方人事

◆坂口時治郎氏(茂山警察署長)轉任人事次本社城津支局來訪
◆久竹春重氏(城津警察署長)新任人事次本社城津支局來訪
◆黃鎬淵氏(慶安郡□□院面長)去二十一日別世

長篇小說 濁流 【47】

蔡萬植 作 鄭玄雄 畵

「조고만한事業」(1)

어떠비탈을 의지삼어 오막사리들이 생선비늘가티 틈어백힌 개복동 그중에서도 상상꼭대기에 올라안즌 어느토담집 방이래야 안시방하나 건넌방 하나 단 두개뿐인것을 명님(明姙)이네가 도통 오원에 집주인한테서 세를어더가지고 건넌방은 따루 「먹곰보」네한테 이원씩받고 세를 내주엇다.

대지가 일곱평네홉이니 안시방 세식구 건넌방 세식구 도합 여섯사람에 일곱평네홉이다.

건넌방에는 지금 먹곰보도업고 그의 아낙도업고 아랫목에서는 제동생이 어린것이 안저누엇고 윗목에서는 경쟁이가 경을 읽고안젓다.

방안은 불을 퍼질럿기때문에 퀴퀴한 빈지(貧臭)가 더운기운에 석겨 물큰 치달는다.

어린것은 오랜 백일해로 가시가티 살이 밧고 굳은 양초비이다. 그러것이 입술만 유표하게 새깜아케 탓다. 떼염을 덧드렷든것이다.

눈 따악감은 얼굴이며 꼼작아니하는 손에는 발서 사색(死色)이 내려덥혓다. 목숨은, 발타발타 가뿐숨을 쉬는마다 달삭어리는 숨통에만 겨우 걸려잇다. 명문도 아니요 초(秒)를가지고 기대릴 생명이다.

경쟁이는 갓을쓰고 두루매기를입고 외목 벽을향하야 경人상아페 초연히 발을개키고 안저 경만 읽는다.

경人상으로 준비한 모수리빠진 소반우에는 밥이 한그릇에 콩나물한접시 밤 대추 고깜을 얼려서 한접시 북에가 세마리 이러케가 음식이요 돈이 일원짜리 지전으로 두장, 쌀이 두되는 실히 되겟고 소지(燒紙)감으로 젖은 백지가 석장, 일전짜리 양초에 불을켜서 꼬자노흔 사기접시, 그리고 소반여프로는 얼멍얼멍한 집신이 세켜레, 대범 이와가티 채려노핫다 병신한테 붓터잇는 귀신더러 이음식을먹고 이집신을신고 이돈으로 노수를해서 떠나가나라는것이다.

이러케 채려노흔 경人상아페 가서 경쟁이는 의관을 정제하고 북을 차고안저 경을 읽는데……

북을 앗게 동당동당 동당동당 울리면서 청도 북대로 고저와 박자를 마추어 나직하고 느릿느릿

『해ㅣ동조ㅣ신 절리ㅣ북도 군산부ㅣ사상ㅣ정 권씨ㅣ댁…』

운운하고 경문을 한참 외운다 그러다가 일러 목소리를 얻죽히하더니

『오바신자앙!』

그러자 얼씬 불르는 귀신을 불러노코는 이어 복도 불러 청도 빨리 귀신이런 귀신은 잇는대로 수업시 불러대인다 게명을 또한 한 경쟁이든지 쉽지어

『합장천관 연해하다가 빼저죽은귀신』

까지 불러대인다.

대체 그러케 수래 만혼귀신들이 겨우 그아며 채려노흔것만가지고 나누어먹자면 대가리가 터지게 쌈을이 날텐데 본시 귀신이란 형체가 보이지아니하는것이라 그러지 저이끼리 오쟁이를 뜨는꼴은 볼수가업다.

아무튼 그러케 귀신대중(大衆)을 불러노터니 경쟁이는 갑작이 북소리와 목청을 맹렬하게노며 그러느라고 발개킨 몽뎅이를 흘섯흘섯하고 팔을번쩍번쩍 처들면서 꾸지저가로되

『네 이귀신들 빨리 운감들하고 당장에 물러가야 망정이지 그러지아니하면 신장을시켜 잡어다가 철리바다 말리바다 쪼차보내되 평생을 국내 장내도 못맛게 할테다』

고 냅대 풍우를 모라치듯 주상가튼 호령을한다.

이러케 한대문을 읽고나서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먹곰보네 아낙이 숨이 터덧까지 차가지고 허얼헐 판자문안으로 들어선다.

그의 뒤에서는 승재가 낡은 광진가방을 안고 따리드러오고 또 그뒤에는 명님이가 따러섯다.

주인과 승재가 방으로 들어서도 경쟁이는 몸은채 그냥안저 경만 읽는다.

먹곰보네아낙은 방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린것의 얼굴우에 업디려 그러안흔드끼

『아가야 엄봉아!』

하고 불른다.

어린것한테서는 찻을하니 아무런 방응도업다. 눈을 떠본다든지 입술을 따룩삭거린다든지 하다못해 손끗을 바르르 떤다든지.

승재는 대번 보고서 짐작은 햇지만 아무려나 오길이니 청진기를 끄내어 귀에걸고 닥어안즈려니까 먹곰보네아낙은

『아이구머니 이것이 즉엇서!』

울상으로 소리를 질른다.

승재가 어린것의 양상한 가슴을 헤치고 청진기로 들어보니까 가는다리케 닥팔는 소리만 들리는동마는동 맥은 아주 끈치고 말엇다. 그는 청진기를 떼고 물러안젓다.

登錄商標

龍(룡)角(각)散(산)

맛이조코 먹기조코 듯는약

主治効能

기관지염, 심장성등의 천식

담이 몹시나오는 담기침 一切

기침이심히나와고통을받는 氣管支加答兒

열이나거나 없거나 고통이심한 流行感氣기침

血痰, 바른기침이나는 肺病患者기침

어린애들께가장위험한 百日咳、麻疹咳

定價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郞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86)一九二〇 一八〇五番

☆ 全道藥房에서販賣하고잇읍니다

백일해 기침가 천식 담기침

治療와豫防

‖痰咳喘息一切의病勢를治療하고‖

‖肺炎肋膜等에의變症을防止합니다‖

保健의關門 咽喉를직히자

靈藥「龍角散」을 꼭服用하서야될 시절이 왓습니다 하로바삐 病患이중하게되시기전에 곳처주십시오

靈藥「龍角散」은 담·기침 천식과 모—든雜症의기침병에 잘드를뿐만아니라 어린애들의 백일해와 홍역기침에 的確한效果를가지고잇는약이니 단시일안에 根治되어버립니다

또한 本劑는 인이백이는법이없고 조곰도副作用의염여가없이 무서운 肺炎과肋膜炎等의變症이됨을防止하여주며 初期에사용하시면 豫防이되는 家庭必須의常備藥입니다